



무진장소방서,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 실시

무진장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최근 무주 태권도원 도약센터에서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코로나19, 생활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교육장 입장전에 마스크 착용과 발열측정 후 문진표 사전 제출 받고 생활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교육 내용으로는 ▲감염병 예방 개인위생 수칙 ▲119신고 방법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 ▲완강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사용법과 실습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교육은 무주태권도원 직원들의 안전지도 능력과 위기상황 대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따라하기 쉽게 설명하고 실습해보는 119신고방법과 심폐소생술 실습은 큰 호응을 얻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소방본부장, 남원 운봉읍 바래봉 찾아

홍영근 전북소방본부장은 27일 등산객 증가 및 낙상환자의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남원시 운봉읍의 바래봉을 찾아 등산로 및 구조구급함을 점검하는 등 현장행정을 진행했다.

홍 본부장은 이날 현장행정에서는 남원소방서 및 지리산국립공원 전북사무소와 합동으로 바래봉 삼거리에서 정령치 방향으로 2.4km 정도의 구간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홍 본부장은 지리산국립공원 전북사무소 및 남원소방서 관계자에게 등산로 험터 및 등산객 사용하는 간이구조구급함 수시점검 및 등산로 안 수칙을 재확인할 당부하는 등 안전에 세심한 관심을 보였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K급 소화기 비치 적극 홍보

남원소방서가 주방이나 식당 등에 'K급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는 식당의 주방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식용유 화재를 막기 위한 것으로,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보다 높아 한번 불이 붙으면 불꽃을 제거하려다 재 발화할 가능성이 높기에 분말소화기로의 진압은 한계가 있다.

특히, 식용유 화재는 물을 뿌리면 수증기로 변한 물이 기름과 함께 사방으로 튀면서 오히려 불을 더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2017년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등의 주방에서는 주방 맞춤형 소화기인 K급 소화기를 1대 이상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헌혈은 생명나눔 실천입니다”

정읍시,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한 헌혈추진협의회 회의 개최

정읍시가 코로나 19 장기화 등 헌혈인구 감소에 따른 혈액 수급난 해소를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다.

시는 지역 내 민·관·군 헌혈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안정적 혈액확보를 위해 27일 헌혈추진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헌혈추진협의회는 해마다 반복되는 혈액 부족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헌혈인구 감소에 대처하고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해 구성된 단체다.

이날 회의에는 정읍시와 정읍시의회, 정읍아산병원, 전북혈액원, 육군 제8098부대 4대대, 정읍교육지원청 6개 기관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지역사회 혈액 수급 상황을 인지하고 코로나 19로 인한 혈액 부족 위기 극복을 위해 각 기관, 단체별 헌혈 장려 방안을 모색했다.

시는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연 2회 이상 공무원 및 유관기관 단체 헌혈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올해 현재까지 973명의 정읍시민이 헌혈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에 동참했다.

또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매주 목요일 개인 헌혈 봉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읍헌혈의 공간(구 시기동 주민센터 2층)을 마련했다.

헌혈자에게는 혈액형과 B형간염, C형간염, 매독 검사, 간기능검사 등 혈액검사와 문화상품권(5,000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헌혈은 이웃사랑의 가장 확실한 실천인 만큼 수혈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따뜻한 생명나눔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주인센터 2층)을 마련했다.

헌혈자에게는 혈액형과 B형간염, C형간염, 매독 검사, 간기능검사 등 혈액검사와 문화상품권(5,000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헌혈은 이웃사랑의 가장 확실한 실천인 만큼 수혈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따뜻한 생명나눔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성덕면,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간담회 실시

김제시 성덕면(면장 강기수)은 27일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20명을 대상으로 복지회관에서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6월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을 재개하여 매주 3회 면소재지 주변의 쓰레기 수거와 공공시설 주변을 정리하는 등 깨끗한 길거리 조성에 앞장선 어르신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교육 시간을 갖고자 마련한 것이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노인일자리 사업은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에 따라 지난 6일부터 재개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무진장소방서, 수방장비 일제 점검·훈련 실시

무진장소방서(서장 박덕규)는 27일 여름철을 앞두고 대풍·집중호우등 풍수해에 대비하기 위한 수방장비 점검과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과 훈련은 보유중인 동력소방펌프와 수중펌프 등 수방장비의 현황 과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조작훈련을 실시하는 등 매년 이어지는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김제시 보건소, 우울고위험군 등록회원 자조모임

김제시 보건소(소장 김형희)와 김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여성숙)는 우울, 스트레스 등 우울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마음치유 체험 프로그램(자조모임)을 지난 15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우울등록회원 자조모임은 2개월에 1회 실시했으나 이번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됨에 따라 영상통화방식의 앱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그동안 코로나19로 만나지 못했던 회원들 간의 근황 이야기와 불안한 마음,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공유하는 시간들로 이루어졌다. /김제=곽노태 기자

결론

▲김승규(36사단 근무, 고 김형철·김성이씨 장남)군·신혜린(장수군청 근무, 신성용 일요신문 전북본부장·김애란씨 장녀)양= 일시: 6월 7일(일) 낮 12시 30분, 장소: 전주 그랜드힐스호텔 3층 세인트홀

알림

▲고용력 스피치 기법·스피치 최고지도사·스피치기법과 웃음치료= 장소: 전주교육대 평생교육원, 대상: 대학생·일반성인 남녀, 모집방문: 전화 및 방문, 홈페이지(<http://leje.kr>), 문의: 063-285-6676·281-7246·010-07304-5666.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 농산물꾸러미 나눔 활동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배인재)은 27일 한국수자원공사 전북지역협력단(단장 이화익)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 농산물꾸러미 나눔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나눔 활동은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재가 장애인 100명에게 가정의 달을 맞아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전하고, 지역농산물 소비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역 농산물 꾸러미는 진안에서 생산된 농산물 11종으로 구성되었으며, 한국수자원공사 전북지역협력단(단장 이화익)의 후원금 200만원,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및 사회서비스사업으로 얻은 수익금 200만원 등 총 400만원 상당의 농산물꾸러미 100개가 전달됐다.

이화익 한국수자원공사 전북지역협력단장은 “이번 나눔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과 침체된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배인재 관장은 “지역 농산물 꾸러미 나눔 활동을 통해 관내 농가는 물론 재가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어 코로나19를 함께 이겨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 착한가게 2호점 탄생, ‘무안낙지’ 현판 전달

진안군 성수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정지호, 황상국)는 27일 ‘무안낙지’를 찾아 착한가게 2호점을 전달했다.

착한가게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매출액의 일정 부분(3만원 이상)을 매월 정기적으로 기부하고 나눔에 동참하는 업소로, 이들 업소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제작한 현판이 전달된다.

무안낙지는 지역 내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하지 않고, 사랑의 집 짓기 등 후원과 지속적인 나눔 봉사활동을 실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착한가게 지정을 계기로 매월 수익금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지역사회에 환원하기로 약속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